

이기는 삶

이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意味)가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꽃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의 의미를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시이다. 꽃처럼 내 이름이 나의 좋은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대한 이미지가 좋은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쾌한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있다. 이름은 나를 대표한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대담한다. 개도 이름을 지어주

고 계속 부르면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각 반응한다.

사람이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이름을 부르며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 필자가 군대에서 기동훈련 시에 행군을 하다가 혼절하여 쓰러진 병사를 응급처치하고 정신 차리라며 그의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조금씩 반응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용 구급차에 연락하여 환자를 후송시켰다. 훈련이 끝나고 그 병사가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자신이 깜깜한 어둠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며 정말 고맙다고 과거를 사가지고 왔다. 이름은 이렇게 나라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동명이인(同名異人)도 있다. 본부승리제단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세 분이 있다. 다행히 세 분의 지역이 각기 달라 2지역과 4지역 그리고 6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어 그 분들을 호명할 때는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각기 지역을 앞에 붙여 2순자, 4순자, 6순자라고 구분한다. 또한 이승우 승사와 축구 선수 이승우가 이름이 같다. 그렇지만 축구 이야기를 하며 말하는 이승우 선수와 승리제단의 이승우 승사는 완전히 그 이미지가 다르다.

위의 시와 같이 꽃에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에 대한 하나의 의미가 부여된다. 그냥 꽃이라고 말하면 종류가 많아 모르지만 코스모스라고 말하면 그 꽃의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물에도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에 의한 의미의 구분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만물의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바로 사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어떻게 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 글이 탄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정을 반복했을까? 그렇다. 나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의미로 남고 싶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true reason men die
인간이 죽는 진짜 이유

사람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 감염될 수 없다. 몸 밖에 있는 병원체가 몸 안에까지 도달해서 살 수가 없다.

▶ Men cannot be infected by microbes outside the human body. The microbes outside the body cannot come and live in the body.

인간 몸의 상태는 주변 환경의 상태와는 매우 다르다.

▶ The state of the human bod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nvironment.

예를 들어, 온도 염도 화합물들 생존하는 조건 등등.

▶ For example, temperature, saltness, chemical components, living conditions and so on.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병원균들은 사람 몸 안에서 살 수가 없다. 마치 민물고기가 염분이 있는 바다에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Therefore, microbes outside the human body cannot live in it, as freshwater fish cannot live in the salty sea.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의학 박사조차도 사람이 오물과 같은 환경에서나 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고 믿고 있다.

▶ But most people, including even medical doctors, believe that men are infected with microbes or viruses living in cesspool-like conditions.

진실은 이긴자 구세주께서 알려주시길, 사람이 죽는 원인은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아닌 피가 썩기 때문이다.

▶ In truth, Victor Savior says "For men to die is not because men are infected by microbes but blood is rotten.*"

by Alice



고조선 시대와 삼국시대를 이어나간 단지파 민족(한민족)의 분포도

고조선을 세운 단지파의 단일혈통을 보전하기 위해
국경 주변 일대에 단지파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채워

춘추전국 시대와 기자족(箕子族)

이스라엘(야곱)의 12지파 중에 사라진 단지파(훗날 한민족)는 기원전 1200년경에 고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남쪽 기슭 '단(라이스)'에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1200년경에 알타이산맥 아래까지 와서 그곳에서 약 200년간 우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알타이산맥 아래의 부얼진에 도착한 단지파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빼어내어 중국 내륙 쪽으로 인도하였다. 이들이 주(周)나라를 세우고 하화족의 은나라를 복속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후 중국 역사는 단지파 혈통을 이어받은 주족(周族) 출신에서 나온 황제의 다스림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周)나라 초기에 주족(周族)에 속한 '기(箕)'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떼어내어 중국 내륙에서 유리하다가 하북성에 연(燕)나라를 세우게끔 역사하였다.

한편 알타이산맥에서 200년간 우거하던 단지파 백성의 주류가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고를 거쳐 만주에 와서 정착할 때(BC1030~1000)에는 하북성에 연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었다. 이후 단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箕)의 족장들에 의해 세워진 연나라와 만주 일대에서 흥기한 변조선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만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운 단지파 백성의 단일혈통을 보전하기 위해, 하북성의 연나라와 만주의 변조선 그리고 몽골 일대에 단지파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채워놓았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장차 한반도에서 구세주를 배출해야 되는 예정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춘추시대 도래와 몽골의 단지파 이동

하나님께서서는 드넓은 중국전역이 많은 나라로 메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바야흐로 춘추시대가 도래할 즈음에, 하나님은 중국의 서북부 카나스 호수 주변에 우거하던 단지파의 자손에게 동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였다. 기원전 1050년경에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골 대초원에 이르러, 거기에서 약 20년 동안 유목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몽골의 단지파 자손들이 기원전 1030년경에 산서성 중부에 있던 기(箕)나라가 하북성의 북경 근처까지 진출한 시기였다. 만주에 도착한 단지파의 자손들은 거기서 약 30년 동안 정착하였다.



하북성이 연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단지파 민족의 주류는 만주(변조선)로 이동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압록강을 건너 단지파 자손들은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다. 그 당시 알타이 말을 사용하던 단지파 자손들은 '古朝鮮(고조선)'이라는 한자어로 된 국명(國名)을 지을 수 없었다. 다만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옮겨가던 기원전 476년경에 공자(孔子)는 한반도를 동이국(東夷國)으로 불렀으며, 전국시대 사람들이 재집필한 '관자(管子) 경중간(輕重甲)' 편에 발조선(發朝鮮)이라는 국명이 보이며, 전한(前漢)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에 의해 '朝鮮(조선)'이라는 국명이 널리 통용되었다. 해가 뜨는 동쪽 끝에 있는 지역으

로써 아침이 맑기 때문에 '朝鮮(조선)'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주류 단지파 자손들은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우고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다. 압록강을 건너지 못한 비주류 단지파 자손들은 만주에서 자체적으로 소박한 청동기 문화를 일으켰다. 오늘날 만주의 영역은 라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오닝성(遼寧省)은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단지파 사람들과 한자를 사용하던 기(箕)나라에 속한 단지파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다. 서로 언

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나 족장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과 같은 장신구뿐만 아니라 천제단을 쌓고 제사지내는 풍습이 같고 조상신의 이름 또한 똑같은 '단'이었다. 동질성을 확인한 기(箕)나라는 더 이상 라오닝성(遼寧省)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에 거점을 둔 기(箕)나라는 춘추시대를 맞이한 열국의 각축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공(召公) 석(奭)을 시조로 하는 연(燕)나라를

세운다. 연나라로 개명된 기(箕)의 족장들은 몰락한 소공 석의 후손들을 왕실로 모셨다. 소공 석(奭)이 주나라 시조 무왕의 동생이라는 점은 연나라가 주나라의 제후국들로부터 공격당할 명분을 주지 않았다. 연나라는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한반도 유입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운 단지파 자손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가운데 9백 년 동안 찬란한 청동기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백태선 기자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 없다.

이제 종살 때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혼신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사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